

10톤이상의 대형보일러에 대한 自動制御設備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가정용보일러 시공확인제도를 확립한다. 에너지절약형 소형승용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세제지원책을 강구한다. 서울과 城南에 열량계부착 시범단지를 운영, 사용열량에 따른 난방비징수방안을 확립한다. 오는 3월부터 5억 2천만원을 들여 에

너지센서스를 실시한다.

◇ 國內鑛業 및 에너지産業 育成

오는 3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발족시켜 한계탄광의 정리 등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추진하며 국내채탄여건에 맞는 무인채탄기의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 金생산량을 지난해의 125kg에서 225kg으로 늘리고 고령도 등 요업원료광물의 공급능력을 제고시킨다.

科學技術處

原電技術自立을 촉진

核廢棄物處理場도 建設

全斗煥대통령은 2월 12일 果川종합청사에서 科學技術處의 금년도 業務計劃을 보고받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경제환경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發展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작년도에 마련된 2000년대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科學技術處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모든 研究人力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科技處가 추진해온 國策研究開發事業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를 엄선해서 한정된 예산과 人力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과 외화가득물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기계류와 부품, 그리고 소재를 하루 속히 國産化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製品的 質과 性能을 좌우하는 금형·공구·열처리·도금·염색 등 소위 생산현장기반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新素材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해당기업과 발명가에게 특혜를 주도록하

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아울러 지시를 하였다.

科技處가 추진해 나갈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國策研究開發事業의 本格化

기계류·부품·소재의 國産化와 관련, 올해 125종의 개발기술을 선정하여 157억원을 투입, 政府와 民間企業이 공동으로 개발계획이다.

오는 1988년까지 모두 879억원을 들여 초고집적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초고집적반도체의 기본설계를 마무리짓고 試製品을 제작, 생산한다.

컴퓨터技術開發에는 1990년까지 335억원을 투입, 행정전산망용 主電算機를 國産化하는 한편 이 기간중 32~64비트용량의 슈퍼미니컴퓨터를 개발함으로써 1991年以後에는 연 2천대의 슈퍼미니컴퓨터를 國産으로 供給할 계획이다.

이밖에 「海洋開發基本法」을 제정 해양 개발을 추진하고 텅스텐·몰리브덴 등 첨단소재용 자원개발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 高級科學技術人力養成과 基礎研究振作

韓國科學技術院(KAIST)이 논문지도와 학위수여를 담당하고 企業은 연구시설과 소요 경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민간참여의 KAIST分院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기계연구소부설 기업기술훈련원 연수인원을 현재의 4개 학과 640명에서 9개 학과 1,040명으로 늘린다.

기초연구의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등의 부문에서 노벨상 수준의「韓國科學賞」을 제정, 실시하는 한편 노벨상수상을 겨냥, 스웨덴의 翰林院에 韓國과학자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부설 研究所의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大學과 연계한 기초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의 대학기초연구지원을 강화키 위해 「産學研협동개발촉진법」을 제정한다.

또 기초연구투자규모를 늘려 총연구개발비의 15%규모에서 2000년까지 20%로 높인다.

◇ 情報化促進과 知識産業의 育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실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키 위해 KAIST의 시스템공학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1천여명의 관련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금융채무보증제도와 品質保證制度를 확립하고 이의 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中小企業의 전산화와 함께 가정보급형 단말기를 개발 「컴퓨터가정교사」시범교육을 실시한다.

문교부와 협조하여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한 컴퓨터의 조기교육을 실시, 컴퓨터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엔지니어링산업육성과 관련,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확립하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 기술능력향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 原子力産業育成

1990年初까지 多目的研究爐를 自力으로

건설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發電爐 設計自立, 2천년 초까지 新型原子爐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88년까지 重水 및 輕水型 核燃料를 국산화하고 原電 11·12號機부터는 국내주도로 건설할 계획이다. 11·12號機는 韓電이 사업을 총괄하고 에너지연구이 핵중기공급계통설계 韓電技術이 기술용역, 韓國重工業이 기자재 제작을 맡아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放射線廢棄物處理를 위해 폐기물발생자부담으로 年 6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약 2백만평 규모의 處分場을 확보할 방침이다.

◇ 科學技術革新施策

올해 5백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예시제를 확대하고 각 출연연구소의 분야별 전문정보기능을 보강하여 KAIST를 중심으로 종합네트워크화하며 기술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구축해 나간다.

선진기술도입을 위해 프랑스와 정밀화학·원격탐사기술, 西獨과 메카트로닉스·신소재기술, 英國과 로보트·반도체기술, 스웨덴과 시스템엔지니어링·통신기술분야 등에서 기술제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의 자원보고인 남극개발기반을 구축하고 기상·해양·생물·자원분야 등에 있어서 先進國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며 특히 올해부터 남극기지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태국·말레이시아·파키스탄·코스타리카 등에 과학기술연구소와 기술훈련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 南南協力도 강화해 나간다.

◇ 科學技術投資의 擴大

당초 장기발전계획에서 2001年 GNP의 3%로 잡았던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5%로 늘려나간다.